2017년 3월 23일 목요일 **광주일보**

'부실 시공 의혹' 폐기물시설 조기 정상화 박차

나주 신도산단내 처리시설 잦은 고장·악취로 주민 고통 이달말까지 하자 보수 마무리···市, 각종 의혹 자체감사

11

나주시가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조기 정 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동 2년여만 인 지난해 여름부터 잦은 기계설비 고장 등으로 악취가 풍기는 등 인근 지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 종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 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 산포면 신도산단내 '가연성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공사 발주와 준공검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능 인증시험)를 마친 뒤지난 2014년 11월 나주시로 최종 인계됐다

하지만 본격 가동에 들어간 지 2년여 만 인 지난해 여름부터 잦은 기계설비 고장 으로 생활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된 쓰레기가 극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함께 부실시공 의 혹이 제기돼 왔다.

제20460호

이에 따라 나주시는 시의원,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등 12명의 하자검증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지난해 12월말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하자검증을 실시했

특히 성능시험 결과 애초 시공사에서 제시한 설계서상의 성능보증 기준(1일 130 톤 처리)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나주시에서는 시설의 발주·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업체인 한라오엠에스(주)에 신속한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다.

나주시는 또 지난달부터 정현인 경제안 전건설국장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및 한라 오엠에스(주) 관계자, 하자검증위원,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차에 걸 쳐 대책회의를 갖는 등 '가연성 생활폐기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나주 가연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물 전처리시설'의 완벽한 하자 보수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정확한 원인규명과 하자보수 조치를 위해 한라오엠에스 (주)에서 제출한 시설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지난 2월 22일부터 제조사 등과 합동으로 기기별 가동실태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운영실대를 점검중이다.

한라오엠에스(주)의 시설개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하자검증위원 및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해 이달말까지 하자보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 종 의혹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 리하기로 했다.

신고배 대체할 국내 육성 배 품종 육성

나주시, 추석 겨냥 2억 지원

나주시가 농촌진흥청의 추석적기 배 국내육성 품종보급 사업으로 신고 배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고객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는 22일 "추석적기 신고 배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화산 배, 황금 배혼합세트를 만들어 상품화하고, 한아름, 조이스킨 배를 젊은 층이 찾는 배로육성하는 '나주배 품종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8월 중순 수확하는 한아름 배의 경우 햇배를 브랜드화는 전략을, 껍질 째 먹을 수 있는 조이스킨 배는 적극 상 품화시켜 젊은 소비층의 입맛을 사로 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선별비, 홍보비 등 유 통활성화에 1억원, 묘목, 식재비 등 신 규농가에 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화산배와 황금 배는 우수한 맛으로 수출 상품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수량이 적고 열과·동녹 현상 발생 등으로 재배가 까다로워 농가 기피로 소량 재배에 그치고 있다"면서 "지난해 서울 양재 하나로 클럽에서 판촉행사에서 추석을 겨냥한화산 배, 황금 배 혼합세트 상품 6톤을출시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는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산, 황금, 추황배 출하계약 희망농가는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061-337-0129)으로, 한아름, 조이스킨, 화산, 황금배, 슈퍼골드 품종에 대해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는 나주배연구회(061-335-3115)로 신청하면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여한 가운데 수차에 걸 해 운영실태를 점검중이다. 리하기로 했다. 는 등 '가연성 생활폐기 나주시는 한국환경공단의 시설점검과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실버 산불감시원 떴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2017년 '봄철 실버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갖고 산불 예 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나주시 제공〉

"내 고향 내가 지킨다" 어르신 60명 발대식

나주시는 "읍·면·동 산림 인접 마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60명을 '실버 산불감시원'으로 고용하고, 3~4월 대형 산불조심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취약지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4월 9일까지 운영되는 실버 산불감시원은 지역사정에 밝은 어르 신들로 구성됐으며, 산불취약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매일 집중 순찰을 통한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논·밭두 렁과 농산폐기물 등 무단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 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을 원전 자단할 계획이다. 송홍근 나주시 산림공원과장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어르신들로 이 뤄진 감시원 활동이, 효과적인 산불 예방은 물론 어르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민의 안전과 산림 보 호에 중대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 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을 목격한 주민은 각 읍 면동사무소나 산림공원과(061-339-7223), 119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선고이는 된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나주시, 전기차 구매하면 2200만원 지원

내달 3~14일 신청자 접수

나주시가 올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다.

시는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민간인들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대당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공고일 전 관내 주소를 둔 18 세 이상 시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하고 나주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법인·단체 및 기업이어야하며, 각 세대 및 사업장에는 각각 1대씩보급이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 3일부터 14일 까지 2주 간 나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접 수(우편 불가)하면 되고, 보급대수(80대) 기준 초과 접수 시엔 21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지원 대 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홈 페이지 열린시정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나주=손영철기자 ycson@



